

심화통일

소련의 '평화노선'... 통일의 버스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를 계기로 하여 세계는 국제적 수준에서 소련의 주도하에 탈냉전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탈냉전화 현상은 동북아 정세에도 어느 정도의 해방 무드를 조성할 것이고 이는 남북한 관계의 개선 및 조국통일에도 그 파급효과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본 기획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신 대량투표 조국통일이라는 주제하에 5번에 걸쳐 게재된다.

◆글 쓰는 차례

1. 페레스트로이카와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
2. 미국의 대 한반도 전략
3.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북한의 대응
4. 기간의 통일논의 정리
5. 신대량투표 시대의 조국통일론

영의 기본원칙으로 삼았던 '민주집중제'에 대한 노동대중을 대상으로, 경제운영으로부터의 분리를 유발시켰다. 이에따라 관료적인 사업작풍, 관료의 특권화, 비대화등 상부구조에서의 심각한 폐해가 나타나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소련의 생산력 발전에 장애요소가 되었던 것은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구조라 할 수 있다. 사실 소련에 있어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구조는 사회주의 발전의 장애요소가 되었다.

"레닌으로 돌아가자"
1985년3월 고르바초프는 소련공

화에는 조합내에서 복수경선·비밀투표를 보장하는 조합법이 확장, 조합소유를 모색하고 있다. 페레스트로이카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주의적 기업성질을 유발, 생산력의 발전을 고양하려는 것이다.

또한 "소비에트사회내에는 어떠한 비관론도 없다"는 글라스노스트(개방)가 언론매체에도 적용되어 왔다. 결론, 페레스트로이카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으로서의 회귀가 아닌, 10월 혁명과 레닌의 관점을 계승한 심화된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토대와 상부구조의 변형적 운동이라 할 수

리22에서 다를 예정이다)은 부력과, 제국주의 국가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소련의 평화공존노선은 제3세계 민족민주운동 진영에 유리한 정세를 조성하는데 기여한다.

왜냐하면, 냉전체제를 최대한 이용, 제3세계를 간섭, 간섭지배해 온 미국과 서방제국주의 논리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즉 냉전논리의 약화로 제3세계 민족민주운동진영의 활로가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소련의 대 한반도 정책은 기본적으로 마·소 이해관계, 중·소관계 및 소·한관계에 의해 틀어지어진다.

따라서, 소련의 대 한반도 정책의 기초는 '평화공존노선'을 통해 한-미-일 군사동맹체제를 약화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련은 이러한 기초하에서 최근 들어 남한과의 관계개선 및 일분과의 관계정상화에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에 영향을 미칠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소-일 관계이다.

만약 소-일관계가 정상화 될 경우, 한-미-일 군사동맹체제는 재편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것은 또한 한반도에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주한 미군의 감축과 군사작전권의 이양(물론, 기만적인 것이지만) 문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남한 내에서의 반미투쟁의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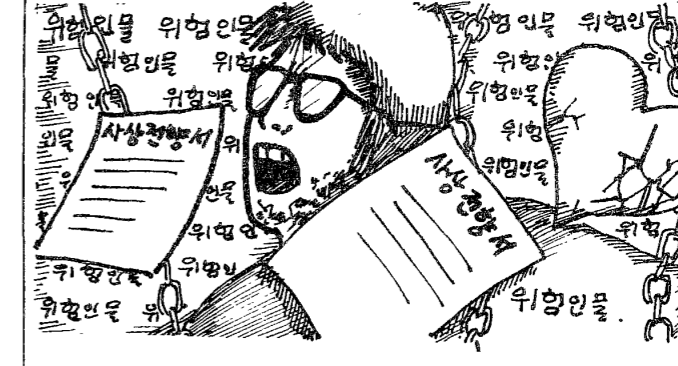
한편, 고르바초프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 블라디보스톡선언에서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한 바 있다.

또한 87년 7월 한태평양연료주최로 동경에서 열린 제4회 한반도 통일문제 학술심포지엄에서 U. D. 티토로프(소련국제사상부장)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미·소·중·일 주변4국과 인도·스위스 등 중립국을 포함한 나라들이 참가하는 '조선문제 원탁회의'의 개최를 요구한 바 있으며, 이 회의에서 주한미군의 철수와 핵금지철폐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사상정당 제도는 72년 12월 '유신헌법'10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보안전

법치국가 없는 인간과 권법

사상 전향제 무엇이 문제인가



반인간적 유신·일재 잔재 사상자유측면서 폐지 마땅 과거사상맹렬한 공격 강요

대양이 없는 땅/흰 것도 검다고 하면 검은 색이 되었다/ 한번 반동이라 표적이 달리면/한번 정말 유언히 공산당이라 낙인이 찍히면/ 아무도 그의 인권을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보호하지 않았다/ 울지에서 서 숨지로 숨어서/ 따지고 살아온 일생/ 동토에서 병으로 없이 열매없이 보낸 일생... 어느 사상 전향제 피해자의 '유지'라는 시이다.

지난 3월1일 '제일동조간담단'사건으로19년의 세월을 감옥에 보낸 서승재가 석방될 세인의 관심이 되었다.

그는 출옥한 후 한겨레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사상전향서를 쓰지 않고 나와 기쁘다"며 "제편에서 형이 확정된 후 교도소로 옮겨져서 마자 현실없이 '절망'강요와 회유, 그리고 전향하지 않음에 대한 차별대우와 보복으로 나날을 보냈다"고 사상전향제의 반 인간성을 폭로했다.

사상전향 제도는 72년 12월 '유신헌법'10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보안전

상을 공격하려는 것이다. 또 오늘의 우리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바람직한 정치 경제제도를 시인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 후 유신으로 녹음하여 감호소내에서 전향발표를 하면 보안 감호처분을 면제 받게 되는 것이다.

전향은 본인의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수기류들을 마시고 온 몸이 명 자유이 나도록 부들부들 맞는 비 인간적 굴욕을 느끼면서 이루어 지는 것이다.

그렇다. 전향제도는 인간의 '양심'을 파괴한다. 전향서를 씌으로써 자신이 사회주의자였던 아니었던 간에 자기는 '사회주의자'였던 것이 된다. 전향제도 그것은 무한하고도 다양한 인간의 내면세계를 무수부스 주의로 간간하게 낙인, 직배논리를 강요한다. 이는 우리화 문제에도 영향을 미쳐, 그 풍토를 얼마나 삭막하게 만들었는가!

세계가 화해와 평화의 시대로 전향제도가 있는 현재 과연 전향제도가 무엇이 설자라가 그 어디에 있는가? 아직도 50여명의 수감자들이 계층에는 자기가 어떻게 양심수가 가두어 버린지도 모르게 보안감호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사상 전향을 강요받고 있다.

배종대(고대법대)교수는 어느 책에서 이렇게 쓴 바 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어떤 위협성이 있기 때문에 독방에 감금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미전향'과 '위협'을 목적으로 보는 법무부의 전근대적이고 기계적인 사고와 늘 가두어 두었던 '타성'의 결과다"라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사상은 자유라고.

< 1 >

페레스트로이카의 제기배경

1917년 10월 25일 레닌을 선두 주자로 하는 볼셰비키는 짜이르 독재체제를 붕괴시키고 사회주의 혁명을 이룩, 인간에 대한 인간의 착취라는 족쇄를 끊었다.

그러나, 레닌을 비롯한 볼셰비키는 10월 혁명을 이룩한 후 여러가지 난제에 부딪히게 된다. 대내적으로는 사회혁명당, 멘셰비키, 입헌주의자등 반혁명세력들의 반혁명기도에 맞서야 했고, 대외적으로는 파시스트들의 침공과 제국주의자들의 반혁명세력에 대한 지원을 분쇄해야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련의 경제는 극도로 황폐해 갔다. 더욱이, 당시의 농민이 러시아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10월 혁명 이후, 소비에트에게 주어 진 과제는 발전된 사회주의의 건설이라기 보다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물적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레닌은 이러한 물적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NEP(신경제정책)등을 시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10월 혁명 이후의 소련 사회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안고 레닌에 이어 스탈린이 권력을 승계하게 된다. 스탈린은 권력을 승계한 후 생산력의 고양을 위해 모든 권한의 중앙집중화와 다수결, 중앙의 지도성과 계획성, 집중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이 정책은 1960년대까지는 일정 생산력의 고양에 기여를 하게 된다. 이의 경제지표적인 예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60년까지는 10.3%에 달했던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생산력의 고양)이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4.3%로 크게 저하되고 80년대에 들어서는 2%로 더욱 떨어지는 등 부진한 실정인 점이 노정되기 시작한다.

이와같은 현상은 국가사회주의(스탈리니즘)가 러시아 혁명 10년을 전후로 하는 전사 사회주의 체제에서 생산력의 양적 고양에는 일정 기여를 했지만 전사로서의 사회적 조건이 사라지고, 생산력이 일정고 양립에 따라, 모순이 외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가사회주의는 반대급부로 각 단위기업으로 하여금 중앙에서 책정된 생산목표량에안맞게 해 노동대중의 '자주성'의식' '창조성'의 발전을 통한 생산력의 질적발전(새로운 기술의 도입, 새로운 상품의 개발)을 저해하게 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레닌이 사회주의의 운

'냉전논리' 약화, 통일에 자주적 이용을 페레스트로이카... 사회주의 심화 도정

산당서기장이 되면서 소위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신사고"를 제창한다. 이것은 그의 예기대로 정해진 사회주의 경제·사회에 진보의 바람을 일으키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그의 경제·정치에 대한 개혁의 기본적 관점은 레닌의 관점과 상통한다 할 수 있다. 레닌은 이미 사회주의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민주집중제"를 이야기한 바 있고 "생활에 있어서의 모든 모순은 변증법적으로 지양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고르바초프의 말을 빌려 페레스트로이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잠들어 있는 인민을 깨워 일으켜 적극적으로 책임있게 일하게 함으로써 각자가 국가의 주인이라는 신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다시말해, 민주주의의 포괄적 발전, 사회주의적 가치, 책임감과 창조적인 능력의 장려 질서와 원칙의 개선 모든 영역에서의 자아비판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들을 최대한 존중하고 개인들의 권위를 최대한 보호하기 때문이다. 고르바초프는 이러한 대전제하에 당풍의 혁신과 더불어 중앙집권적 당의 개혁에 의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체제를 포기하고, 각 단위사업에 '독립체제'를 보장, 생산수단을 국가소유에서 사회적 소유로 이전하는 한편, 지난 88년 5

'새로운 사고'와 한반도

고르바초프의 등장 이후 소련은 70년대에 이룩한 미국과의 전략적 균형을 바탕으로 제2의 신대량투표, 평화공존노선을 주도한다. 고르바초프는 85년 11월 제네바에서 열린 레이건과의 정상회담에서 군비축소의 진전을 강조했다.

그후 86년 2월 25일~26일 사이에 열린 제27차 공산당 대회에서 평화공존노선이 외교정책으로 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 소련은 핵문제 공격을 포기하고, 중거리 핵무기협정(INF)을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과 전략핵무기를 50% 감소하기 위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사실 소련에게는 미국과의 군비경쟁이 발전된 사회주의 건설에 많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최근 소련의 '평화공존노선'은 근본적으로는 자국의 사회주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평화공존노선'이 근본적으로 자국의 사회주의 건설에 있다 할지라도, 이는 그동안 소련으로 부터의 위협을 내세워 군비확장을 해 온 미국과 서방제국주의 국가들의 발상(사실 군비확장과 군사산업의 발달은 미국내 독점자본의 이해와 긴밀히 연관된 것이다)-

국제정세의 탈 냉전화를 조국통일과 관련시켜 보면 크게 두가지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시말해 그것이 통일지향으로 나아간 것이냐 아니면, 현 상태의 유지(산단고착화)로 나아간 것이냐 하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이러한 해방무드를 타고 남북한 교차승인이나 유엔단독가입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민족민주운동 진영에 주어지는 과제는 이러한 일로들을 분쇄하고 해방무드를 조국통일에 자주적으로 이용하는 데 있다 하겠다.

(학술부)

사람을 소중히, 꿈을 소중히
꿈을 실현하는 젊은이들

크레파스 같이 사는 사람, 수채화 같이 사는 사람.



뜻밖의 인문계열 수석 합격. 서울대에서 물리학을 공부하던 박지연(22)은 스스로의 '작은 꿈'을 위해 본의 아닌 본인의 재수를 거친 결과가 조금은 화려해져 불현듯 수석 합격이다.

"장애자들과 함께하는 길을 택했다는 사실을 특별하게 보려는 시각도 하나의 장애요. 이웃으로 같이 살고 싶은 것이지, 봉사라든가 희생이라는 생각이 감히 하지 않습니다." '성직순인 행복'을 위한 공부를 하다가 대학 일년의 경험은 그녀에게도 참으로 각별한 것이었다.

수없이 회자되는 자취사 이상, 그럼에도 침착 되길 거부하는 자기영역을 가진 채 공동의 꿈을 논하는 모습들...

뒤 그리듯들 혼돈스러워 하며 집이 있는 대구로의 귀향길에 들린 '사랑의 토요 학교'가 자신에게는 '꿈의 토요학교' 노릇을 한 셈이었을까.

"모두들 크레파스처럼만 살려고 해요. 크레파스의 색은 덧칠을 거부하지요. 하지만 수채화는 다른색이 겹쳐도 은은하게 또다른 색을 갖출 줄 알아요."

이화여대 특수교육학과 1년 박 지연

인재와 참단기들의

三星

최신 혹은 주위의 '꿈을 향한 화성'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십시오. 원고 1000자 내외로 4월10일까지 우체국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1000원 상당의 장학금으로 소개하고 소정의 교재를 드립니다. ●본문은, 서울 중구 태평로2가 250 삼성본관(27층) '인재개발' 편집위원회(T. 751-2067/9)

우리모두 껌데기를 벗고서

○... 생소한 대학문화와 모순으로 가득찬 이 사...
 ○... 회를 접하는 일이 신입생에게는 결코 쉬운 일...
 ○... 이 아니다. 더불어 그것이 중요한 것은 대학...
 ○... 신입생시절의 경험과 고민 그리고 세계관의...
 ○... 정립이 결국은 그사람 자신이 얼마만큼 주인...
 ○... 되게 살아 나갈수 있느냐의 여부가 달려 있기...
 ○... 때문이다. 아무쪼록 신입생들이 끊임없이 고...
 ○... 민하고 씩씩이 실천하는 자세와 애정어린 눈...
 ○... 으로 조국과 민족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당부...
 ○... 한다.



해마다 3월이 되면 대학의 교정은 새로운 활기를 띤다. 대학을 이끌어 나갈 신입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신선한 그들의 모습이 교정 곳곳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 학년이 올라가는 선배들은 그들에게 대학생활에 대해 따뜻한 말로써 설명해 주기도 하고 신입생들은 그들이 앞으로 살아나갈 새로운 공간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슴이 설레기도 한다. 대학의 문에 서서 신입생들이 고민해야 할 것이 너무도 많은 까닭이다.

동우리를 바치는 결단도 있을 것이며 자신의 밝은 사고와 고등학교 때 배운 가치들에 대한 회고도 생길 것이다. 껌데기를 벗고 현실이 가진 모습들을 아픈 고민속에 해결해 나간다면 대학은 신입생들을 진정 주인으로 설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대학이란

대학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라는 물음에 우리는 흔히 '진리를 탐구하는 상아탑'이라고 하는 대답을 듣게 된다. 과연 그렇까? 상아탑이라고 하는 의미는 매우 고상하며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상적이고 깨끗한 곳이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대학은 결코 그러한 곳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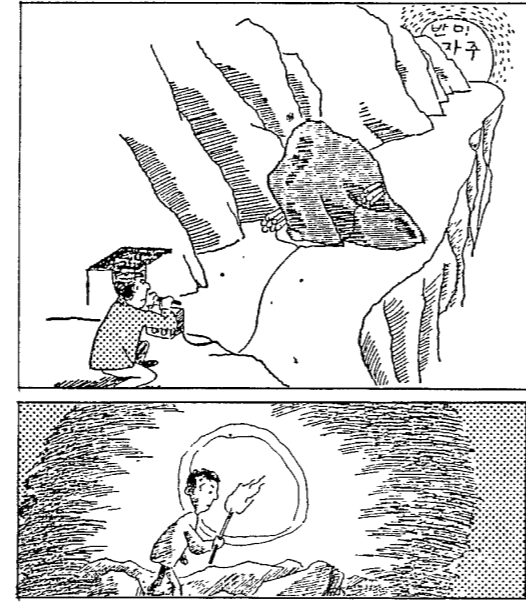
대학은 사회와 동떨어져 있지 않고 동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기에 항상 정의의 편에서 서서 민족을 옹호하고 독재정권과 계급주의체제와 맞서서 가장 앞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워온 곳이다. '진리'는 결코 사회와 동떨어진 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닌 사회라는 객관적 현실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걸로로는 '진리'와 '학문'이라는 허울을 쓰고 속으로는 끊임없이 민족의 자유권을 박탈하고 착취하는 배반정권과 계급주의에 맞서, 그리고 그들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대학내의 온갖 부정부패에 맞서 싸워왔던 것이다.

즉, 우리민족의 국권통수권을 미국의 일개 장군이 가지고 있고, 민족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온 강토를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핵무기가 배치된 것을 알았음에도 민족의 자주적 권리를 옹호하며 싸워온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전통을 갖고 있었기에 온갖 거짓이론과 학문을 배격하고 민족과 민족의 이해에 봉사하는 사명을 갖고 존재해 왔던 것이다.

한 허무와 개인주의적 즐거움으로 매꾸어 주는 것이 아닌 우리 삶의 힘을 주고 모순을 해결하는데 신명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대학문화는 어떻게 존재하고 있고 어떻게 찾아 나갈 수 있는지 알아보자. 대학에는 올바른 대학문화를 형성하는 많은 공동체적 모임이 있다. 동아리가 있고 학과마다 학회가 있으며 이러한 곳에서는 끊임없이 문화적 공동체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있다.

우선 동아리는 다른 사람과의 뜻 깊은 만남을 보장해주며 동료들과의 의미있는 대화와 토론학습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학생운동이란
 대학에 들어와서 가장 크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학생운동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부모님들로부터, TV로부터, 고교 선생님들까지 데모까지 말하는 충고와 함께 학생운동은 다가온다. 학생운동이란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격렬하게 싸울 수 밖에 없는가. 그것은 이 땅이 가지고 있는 모순에 끊임없이 저항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실천이며, 1945년 이래 계속 되어온 미국에 의한 식민지정착을 물리치고 민족주권을



허구적 '상아탑' ... 실천으로 극복해야 끊임없는 고민 - 행동하는 자세 필요

를 '생생파티나' '미팅' '디스코' 등을 떠올리며, 대학문화는 말쑥 젊음을 즐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입시교육에 쫓겨 대학 입시를 마치고 나자마자 대학생활을 위한 진지한 고민이나 절계를 하기보다는 이러한 문화를 대학문화라 생각하고 탐닉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미팅'과 '디스코'라는 서구지향적이며 개인주의적, 소비적인 향락문화가 대학문화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한 문화는 대학생의 한달 학습비에도 못미치는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을 고칠 수 있게 하는 힘과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자신의 아픔으로 알고 조국의 현실을 이끄려는 우렁찬 함성과 같은 건강함은 애당초 없기 때문이다. 대학문화는 대학인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담으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문화이다. 대학문화는 대학인을 현실에 대

향하여 인간과 사회에 대한 참된 인식을 각개하여 우리가 참된 삶을 개척하고 올바른 실천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동아리는 그 성격과 활동내용에 따라 학술동아리, 문화동아리, 종교동아리, 봉사동아리 등으로 나뉘는데 동아리활동은 대학생활의 꽃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실천활동을 내거는 것이다. 다음으로 학과를 들 수 있는데 우리는 흔히 학과관련 전공학문만을 생각하고 말하지만, 사실은 학과보다 많은 일들을 해나가는 단위는 없다. 모든 학생회사업이 과학실험에서 시작되고 진행된다. 그리고 학과학회에서 이루어지는 독서토론과 공동학습을 통하여 전공학문의 좁은 시야를 벗어나 폭넓고 다양한 진리를 탐구하며, 그 과정에서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올바른 인간관계를 가져 나

와번주의적인 자세 또는 조급한 자세 모두 좋은 자세라고 할 수 없다. 즉 '모든 것은 완벽히 인식한 후에야 실천할 것이다'라는 것과 성급히 결정해 버리고 모든 것을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 둘다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만큼 분노하고 분노한만큼 실천하려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과학적 인식의 기반을 넓히고 매단계마다 적절한 수준의 활동을 하는것만이 더불어 수준의 인식과 실천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자신의 발전을 찾을 수 있는 환경에 열심히 참여해야 할 것이다.

학원외자란
 우리학교에 첫발을 내딛는 입학식에 서부터 신입생들은 학원외자라는 말을 듣는다. 그리고 앞으로 가장 많이 듣고 가장 가까운 현실로써, 해결해야 할 과제로써 다가올 것이다. 과연 학원외자란 무엇인가? 그동안 남한사회에 있어 학원은 최소한의 자유권조차 유린당할채 독재정권의 손아귀에서 돌아왔다. 학원이 존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 즉 학문사상의 자유보장과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압력에 대응하여 부패하지 않는 과수대의 역할이 지금까지는 민족의 과수대가 아닌 정권의 과수대역할로 전락해 왔다는 것이다. 교수-학생의 자유로운 학문탐구와 현실참여는 인맥과벌의 난무로 학원을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윤을 뽑아내는 곳'으로 전락시켜 학원의 주인은 온데간데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우리학교에서는 88년 장학금 내역공개, 예산공개투쟁을 시작으로 총체적인 학원외자투쟁의 깃발을 치켜 든다. 그것은 곧 학원의 주체인 교수-학생-직원이 함께하는 공정한 행정구조와 완벽한 학문사상의 자유를 구현할 수 있는 교과과정 제편, 그리고 인맥과벌의 난무를 막는 인적구조의 혁신이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어 83년 철회했던 동업의 현실을 대변이라도 하듯 부정부패관련 총장, 이사장 구속이라는 여파에 시달린다. 그에 따르는 재정구조의 확보와 동국총흥을 이룩하려는 혁신의 각거임이 계속된다. 학원이 돈이 없어 역사에 걸맞지 않게 퇴보해 거듭할때 도움을 얻지 못한 제단의 일방적인 총장선출, 그리고 그에 수반한 각 주체참여를 통한 총장선출이 정점이 되어 오늘에 이른다. 우리학교에서 최초로 정립한 학

원외자투쟁의 이론은 학사투쟁이 결코 복지시설 확충등의 경제적인 관점의 문제가 아니며 남한사회의 대미존재이고 권력 종속적인 모순이 학원에도 그대로 관철되고 있다는 정치적인 관점의 문제라는 점을 밝혀냈다. 그리고 그것은 교수-학생들을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체로서 뿐만 아니라 새롭게 건설한 자 주동력의 주인으로서 융합되고 일정한 정권에서 투쟁을 벌이고 모순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뜻한다. 88년의 1백36일간의 장기농성투쟁으로 수많은 단합과 공작속에서도 힘을 잃지 않고 우뚝선 학원외자투쟁은 이제 모두가 주인이라는 자세로, 서로를 존중하고 학원의 자주성을 옹호하려는 자세로 의부의 어떠한 억압과도 맞서 가필코 승리할 것이다.

학습은 어떻게
 대학신입생들은 무수한 주입식교육과 편향된 지식의 틀바구니에서 참교육을 열망하며 대학에 입학한 전교조 1세대이다. 그렇기에 누구보다도 올바른 가치관, 세계관에 대한 갈증이 심하고 그것을 대학생활 통해 풀어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곧 소위 학습토론을 통한 세계관의 확립이다. 그러한 학습은 체계와 질서를 세워 매일 꾸준히 해나야 하며 실천과 결부시켜 진행되어야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학습은 혼자만 할 것이 아니라 여타사람과 집단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와 구체적인 모임이 각과마다 존재하는 학과라 할 수 있다.

〈학술부〉

학교당국이 지난14일 오후에 발표 한 '경주캠퍼스 인사개편'을 다스림 규명령으로 빠뜨리며 '경주캠퍼스의 자치권을 말살하려는 의도'라며 학교의 임명장부를 불 러일으키고있다. 지난달19일 서울캠퍼스의 불대 학장을 제외한 전 보직 개편이후 경주에서도 보직인사가 예정되긴 했으나 이번 인사조치는 출속이 있었다는 평이 없 지 않다. 민중선 거의 열풍에 몸살을 앓고있는 학원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라는 가, 오는5월의 민주총장선거에 대비한 음모적인 행위라는 의견은 차지하고있다. 경주캠퍼스가 지난88년부터 학 자부의 사활을 경주자치권의 용납에 두고 부총 장의 직선과 부총장의 인사행정의 확보를 학교측에서 일정부 분 인정했던것에 대한 전면 부정 이었다는 것이 그것이다. 총학생회는 이 갑작스런 행위에 당황하면서도 즉각적으로 대 응했다. 배대진(영문과)총학생회장은 계 단에서 일방적으로 임명한 부총 장에서의 전격적인 인사를 즉각 철회할것을 요구하며 '기술적인 인사 발표는 총장의 임명권한이 전에 경주캠퍼스부총장을 전격

무시한 처사로 오는5월에 있을 민중선거의 사전 우위확보를 위 해 즉박리에 단행한것 같다'라고 단정하며, '이같은 조치는 동국 을 다스림 규명령으로 빠뜨리며 경주캠퍼스의 자치권을 말살하려 는 의도'라며 학교의 임명장부를 불 러일으키고있다. 지난달19일 서울캠퍼스의 불대 학장을 제외한 전 보직 개편이후 경주에서도 보직인사가 예정되긴 했으나 이번 인사조치는 출속이 있었다는 평이 없 지 않다. 민중선 거의 열풍에 몸살을 앓고있는 학원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라는 가, 오는5월의 민주총장선거에 대비한 음모적인 행위라는 의견은 차지하고있다. 경주캠퍼스가 지난88년부터 학 자부의 사활을 경주자치권의 용납에 두고 부총 장의 직선과 부총장의 인사행정의 확보를 학교측에서 일정부 분 인정했던것에 대한 전면 부정 이었다는 것이 그것이다. 총학생회는 이 갑작스런 행위에 당황하면서도 즉각적으로 대 응했다. 배대진(영문과)총학생회장은 계 단에서 일방적으로 임명한 부총 장에서의 전격적인 인사를 즉각 철회할것을 요구하며 '기술적인 인사 발표는 총장의 임명권한이 전에 경주캠퍼스부총장을 전격

세대의 선택 SHARP 졸업·입학을 축하합니다.

"젊은이의 꿈과 미래에 언제나 샤프가 있습니다."

사프만의 친절하고 신속한 A/S제도 전국의 서비스망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친절한 아파터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3가지 필을 드립니다. ① 한·영 혼용 ② 영·영 혼용 ③ 영·영 혼용

PA-3100N (검정색) QL-800H (아이보리색)

PA-3100N (검정색)
 * 한·영 혼용/영·영 혼용
 * 4,500기 메모리
 * 자동 윤지산기기능, 상하부지 이동
 * 한글·영·영 혼용용 필이 이동(타입), 자동문지 간격조절(PS)
 * 용지폭 13"

PA-3130N
 * 워드프로세서형 (Word processor)
 * 한·영 혼용 * 8,000자 메모리, 편집기능
 * 16자 Display 편집기능

미래를 향한 공학도의 파트너!

EL-5150
 * 4자리 표시 (10~9999) * 4자리 표시 (10~9999) * 4자리 표시 (10~9999) * 4자리 표시 (10~9999)

EL-5100S
 * 4자리 표시 (10~9999) * 4자리 표시 (10~9999) * 4자리 표시 (10~9999) * 4자리 표시 (10~9999)

EL-9000
 * 8자리 표시 (10~99999999) * 8자리 표시 (10~99999999) * 8자리 표시 (10~99999999) * 8자리 표시 (10~99999999)

SA프전자산업(주) 서울 영등포구 미도동 14-27 (대성빌딩 5층) (여의도 국회의사당 옆)

전통의 서점 종로서적은 대학인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신학기 대학 교재를 완전히 갖추었습니다.

- 신학 도서 / 2층 기득관
- 경제학·법학·경영학·신문방송학 / 3층 사회관
- 철학·종교학·역사학·사회학·심리학 / 4층 인문관
- 자연과학·기술과학·컴퓨터 전문 도서 / 5층 자연관
- 문학·미술·음악·무용·체육·사진 전문 도서 / 6층 문예관
- 구미·일본 수입 전문도서 / 6층 외국서적관
- 대학노트·화방용품 제도기 / 4층 문구매장
- 각종 컴퓨터·전자계산기 / 5층 OA 매장

도서·컴퓨터·사무기기·레코드·문구·팬시의 종합 매장

저절 1호선 종각역 바로 위

종로서적

대외전화 733-2331 (매장) · 732-2331 (사무실) / 도서안내 733-3061
 본사 FAX 732-9223 / OA 부 FAX 732-9334 / 텔렉스 K-29926

'산업평화'가 노동자 감시인가

수용소 방불케 하는 '현대왕국' 고발

울산은 '1984'(?)
 "경비대입니다. 우선 자리를 옮기도록 하죠"
 "경비대라요"
 "회사측이 고용한 공수부대, 운동경기자 출신의 노조감시원들입니다"
 이곳은 조지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인간 사육장인가 아니면 노동자가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삶의 터전인가
 이것은 결코 허구나 과장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요로운 내일



현장 취재

을 위한 산업평화를 그토록 외치는 우리나라 글자의 개발인 현대그룹 산하 현대중공업의 현대모습인 것이다.
 기지는 제대 이영현노조위원장의 구속사태로 지난해와 같은 진풍이 예상되는 현대중공업의 찾아 취재를 하기도 전에 회사측의 경비대에 끌려야 했다.
 "회사측은 경비대를 고용해 노조 관계자들이 움직이거나 외부사람을 만날 때마다 보이기만 하면 공공연히 감시원을 불러 저렇게 감시합니다."
 또 수배된 노조관계자들이 차트 링크에 타고 옮겨와 차 트렁크까지 조사하는가 하면 노조관계자와 만난 외부사람의 미행까지 서슴치 않고 합니다"라며 주의를 환기시키는 노조관계자의 말을 통해서 '결혼'까지도 빅브라더의 지시로 이루어지는 '1984'년을 떠올린다.

우여곡절 끝에 현대중공업 노동자 출신인 '박진관' 주재자의 차안에서, 노동자들의 속소로 자리를 옮겨가며 취재를 시작해야만 했다.
 "준법투쟁이 위법(?)
 87년 7-8-9월의 뜨거웠던 노동자 대투쟁의 메카로서, 지난해에는 식칼테러등을 당하면서도 민주노조를 지켜낸 현대중공업노조는 조합원만 1만8천명이 넘는 대규모사업장노조의 전성기이다.
 그런 현중노조의 5대위원장으로 취임식도 안한 이영현씨를 구속한 노조(전 노조위원장 이원진씨등)들의 재판에서 상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유래없이 높은 형량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그것에 항의

하는 과정이 집단조사와 집단원자 유가등 합법적이었다는 점등은 회사측과 정부가 의도적으로 노조를 탄압하려는 음모가 아니냐는 비판을 뒷받침하고 있다.
 "경찰이 2월9일 이위원장을 구속한 표면적 이유는 정의조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속노동자가 석방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 하고 재판결과 1심보다도 높은 형량이 구형된것에 항의, 준법투쟁을 전개한 것 뿐입니다"라는 말에서도

다는 주장을 설득력있게 뒷받침하는 것이다.
 비상대책위로 단결을
 한편, 이위원장이 구속된 직후 노조는 대외원간담회를 통해 회사측과 정부의 탄압에 맞서 강경하게 대처하기로 하고,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회사측에 구속된 이위원장을 집행부에 대한 고소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노조가 외부 불순세력과 연계되어 있다"며 구속

△정부와 독점지본은 민자당 창당과 함께 적극적인 탄압으로 방향을 바꿨다. 89년 120여일간의 정기파업 당시 투쟁하는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자료사진=노동해방 문화)

월차휴가등 준법투쟁 위법으로 몰아 전노협 중심으로 강력 대응 공수부대 출신 경비대 감시의 눈초리

알수 있듯이 취임도 하지않은 신임 위원장을 고소한 회사와 그걸 빌미로 구속한 경찰사이에도 모종의 음모가 오고가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위원장의 구속말고도 우기하수부대위원장과 김학두중장비 위원장이 수배되어 있고 노조집행부에 대한 탄압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는 대목에 이르면 그것이 추측만은 아니라는 걸 알수있다.
 만이 아니라, 이위원장이 구속되기 전날인 8일에는 울산시청노동부에서 노조제정업무조사가 들어오기도 했고, 다음날인 10일에는 전경3개 중대가 동원돼 광견력이 개입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런일은 현중노조가 전노협에 자주적으로 참여한 사실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재정업무조사와 잇따른 집행부의 구속·수배조치가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말은 정부의 전노협외해를 위한 탄압이 대기업노조에게까지 손을 뻗치고 있

노동자성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이전의 모습과는 달리 고소취하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회사측에 맞서 노조는 "모두가 회사측의 기만적인 모습에 맞서서 당하고만 있을수는 없다는 결의에 차있습니다."
 회사측이 계속 고소취하를 않고 정부와 함께 탄압을 한다면 작업이 아닌 집업거부, 특근거부, 휴일근무 거부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그룹노조총연합(현총련)을 중심으로 계열사노조와 함께 노조탄압규탄 리본달기, 벽보붙이기, 울산경찰서항의농성등 시민운동과 가두투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우조선, 기아산업, 서울 지하철공사등 6개 대기업노조 대표들과 협의를 갖고 "전국대기업노조 비상대책회의"를 구성, 현대중공업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운동에 대한 전면탄압에 공동대응해 나가

기로 결의하기도 했다.
 전노협탄압의 전초전
 '작센분자에 포섭되어 우리직장을 파괴하는 자를 색출하여 추방합시다'라는 회사측의 플래카드에서 나타나듯 회사측과 정부는 노동자들 자주적인 요구로 건설된 전노협과 노조를 일방적으로 '적색'이라고 내몰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해부터 우려되는 3당합당을 통한 친미반민주 아합을 통한 대대적인 이데올로기 공세이다.
 무차별적인 이데올로기 공세를 통해 이들이 일고자 하는 바는 간단하다.
 갖자라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국민들의 '레드 콤플렉스'에 편승해 잘라 뜯게 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대응은 너무나 의연하며 정당하다.
 "저들이 의도하는 바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단일한 정부경제정책의 실행, 기술·설비부자에 인색함으로 침체된 경제와 학생들의 조국통일운동등으로 기반이 없지는 마지막 발악이라고나 할까요.
 애꿎은 노동자들은 내적으로는 생산의 힘을 높이고 밖으로는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을 막는 음모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 싸울것입니다"라며 이데올로기공세와 노동자

들간의 분열을 꾀하려는 음모에 팔러 들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울음의 임금인상투쟁과 반민자당 투쟁으로 가시화된 전노협과 정부·독점자본과의 싸움.
 그에 대미한 선공으로써의 단위 노조과파괴음모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렇듯 조급씩 갈아먹어들이오는 가진자들의 공세에 맞서 이영현 위원장은 유중추진을 통해 담담히 그러나 힘있게 대항하고 있다.
 "우린 열구리에 식칼이 꽂혔고 머리가 바살나면서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호르는 눈물을 머금고, 비폭력으로 동지들로 가슴안고 투쟁해왔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노조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노조의 역량을 축적해 사랑하는 내진국 내조국을 노동자의 힘으로 건설해 냈습니다" (유 권준기자)

교사 통한 '합당선전' : 교육실종

민자당홍보 고발한 전교조를 찾아

90년도 제1차 공직자 시책교육 실시계획
 1. 목적
 가. 공직 전환기에 있어서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인식 및 공직자적 함양
 나. 90년대 정치질서 재건의 역사적의의에 대한 공명적 확산
 2. 기본방침
 가. 교육대상 : 전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나. 교육내용
 ○ 90년대의 민족사적 새로운 정치질서의 당위성
 - 신당정당의 역사적의의 및 배경
 - 정치안정과 국가발전의 중요성
 ○ 정부는 '시책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교사들에게 정치적 선전을 하는 등 교육 중립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교사들은 자신들의 조직인 교사원리 연구회의 회의를 확보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결국 시교위와 통일교 사이에서 서로 다른 목적 즉 전교조를 좌경세력으로 매도하는 것과 종교적인 기반을 확대시키려는 목적이 맞아떨어지면서 시교위는 특정종교, 특정정당의 선전기관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모든 상황에 비추어 불매 전교조를 생겨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와 시수되어야만 하는 필연성이 도출된다.
 또 하나의 예로 '한국자유총연맹'에서는 '북한사회 개방추진 지지서명 협조회의'라는 제목으로 각급 학교에 학생들의 지지서명을 받아달라는 공문을 띄웠다고 한다. 이에 예전에 가르치던 제자에게 편지를 받았다는 어떤 선생님은 '학교에서 강제로 서명을 요구해 이럴 수 없이 서명을 했지만 사실은 하고 싶지 않았더라면 제자의 편지에 가슴이 아팠다고 한다.
 89년 5월 전교조가 결성된 이후 무수한 탄압을 받아오면서도 해직교사 1천6백여명, 현직교사 1만2천여명도 전교조를 꾸려오고 있으며 지난 1월에는 민주적인 결성을 통해 3대 집행부를 조직, 아래로부터 탄탄한 모범적인 조직을 건설한 바 있다.
 전교조가 제시한 90년 활동방향은 '학교 민주화 요구 투쟁을 주축으로 '해직교사 원상회복', '전교조의 합법성 쟁취'로 설정해 놓고 있으며 현재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10일 모두를 놀라게 했던 광주 서석교 김승수교구 타사건은 기존 학교의 잘못된 제

교육자가 자유로운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정치적 중립성을 건지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국가와 이념을 초월한 교육의 본질인 데도 교사들을 정부체계의 하급관료쯤으로 취급하는 낡은 풍토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전교조 인건지부와 울산, 울주지회에서는 이번 사태를 '위헌'이라 규정, 지역 검찰청에 고발장을 낸 바 있다.
 "정부가 교사들이 위치한 교육제도, 교육환경 개선요구에 대해 '교육자가 어떻게 노동자인가'라는 논리로 전교조를 탄압하면서 자신들(시교위)은 명령을 시달렸지만 다르다고 하는 것은 유신시절 5공시절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고계호

정치선전 교사동원... 중립 온데간데 합법성 쟁취만이 교육중립 이뤄내


해직교사는 말한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1월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통일교 신하 '한국교사원리연구회'주최로 실시했던 교사연수에 참여를 지시한 것이 또한 밝혀져 커다란 물의를 빚고 있다.
 연수내용도 '학원가 동향과 좌경과 실패'에 관해 대학생 및 민선세력을 북한을 통일전선을 추종하는 세력으로 매도하는 극우이념을 퍼뜨리고 통일교와 극우이념을 연관시켜 선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일교는 그동안 그들의 막대한 경제력을 이용하여 방학중 해외연수라는 미명아래 교장들에게 해외여행을 시켜주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교장단의 힘을 빌려 결과적



피교육자가 자유로운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정치적 중립성을 건지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국가와 이념을 초월한 교육의 본질인 데도 교사들을 정부체계의 하급관료쯤으로 취급하는 낡은 풍토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전교조 인건지부와 울산, 울주지회에서는 이번 사태를 '위헌'이라 규정, 지역 검찰청에 고발장을 낸 바 있다.
 "정부가 교사들이 위치한 교육제도, 교육환경 개선요구에 대해 '교육자가 어떻게 노동자인가'라는 논리로 전교조를 탄압하면서 자신들(시교위)은 명령을 시달렸지만 다르다고 하는 것은 유신시절 5공시절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고계호

신뢰받는 첨단기술 HYUNDAI

나는 대학생들의 뉴 리더




현대 워드피아 HWP-50

※ HWP-50 권장소비자가격: 430,000원 (부가세별도)

한발 빠르게 선택하고 남보다 앞선 기쁨을 누린다

지금 대학가에 현대 워드피아 선풍이 불고있다. 앞서는 대학인이 선택하는 현대 워드피아 - 고성능 16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탑재, 빠른 데이터 처리속도를 자랑합니다. 특히 동급가중급 국내 최저가 보급형이면서도 자료정리에서 리포트작성, 연구논문 작성에 이르기까지 활용범위가 넓고 컴팩트형이라 언제 어디서든 사용이 간편합니다. 일의 능률과 합리성을 존중하는 신세대 감각의 최첨단 워드프로세서 - 현대 워드피아

현대워드피아 비교될수 없는 5가지 장점

1. 빠른 데이터 처리속도
2. 고속의 열전사 프린팅
3. 컴퓨터와 호환가능
4. 최대 9개국어 사용가능
5. 일러자판이 표시되어 이용하기 편리

현대워드피아 현대전자

서울 중랑구 전자동 66 현대전자빌딩 전화: 733-5555 교환: 5115-7
 교육문의, A/S 문의: 741-1131/4

서울 중랑구 뉴힐드사루기 279-8833
 신회전자 745-6301

대구 동구 인곡사루기 733-5564
 디지털 277-9427

부산 북구 사루기 756-6767
 성문전자(주) 757-2428

대구 동구 현대OA서비스 267-9746
 (주) 삼성전자 777-4741

울산 중구 (주) 삼성전자 701-7679
 발원정보시스템(주) 702-3236

대전 중구 멀티테크 703-9346
 텍스컴퓨터 719-1007

충청남도 천안시 현대OA총판 741-0724
 영통로 741-1137

강릉시 현대전자 543-3888
 (주) 토키오 532-4177

충청북도 청주시 현대전자 413-1124
 현대OA 581-1901

87년 대선까지, 그 역사적인 대통령 직선투표에 임박해 있을 당시, 전국 각지의 국민들은 그들의 안방에서 한편의 감동적인 영화를 감상할 수 있었다.



“킬링필드. 베트남의 민족해방전쟁을 주인공들의 우정을 보여주는 공간적 배경으로 단 순순히 서서 버리고, 월맹군의 잔혹한 살상을 강조한 이 영화가 투표장에 나선 국민들을 얼마나 ‘보수화’ 시켰는지는 정확한 수치로 알수는 없지만 “빨갱이가 죽던 시체더미를 보고 차를 떨었다”라는 한 시민의 반응에 미루어 그 엄청난 파급 효과를 짐작할 수 있다.

UIP 직배반대등사회변혁운동 참여

영화 지배계급의 도구일 수 없어

영화앞세운 미국문화침투극복해야

은 큰 산이었다. 특히 미군정청은 온갖 자급력과 권력을 내세워 미국영화 배급회사를 통해 국내의 영화 시장을 독점하려 시도했다. 거대한 자금을 통해 제작된 미국영화는 폭력과 오락성, 선정적 화면 등으로 한반도 민중들의 판단력을 흐리게하고 영화속의 가치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케하는 정치적 측면에서의 그 배제성이라 이따구 말로 할 수 없다.

당시 미국영화 ‘잃어버린 주말’을 상영하는 극장에 젊은 남녀들이 가득 들어찬 것만 보아도 영화가 전파와 문화적 침투, 정치적 허탈감 조성 등 정치적공세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이렇듯 해방직후 어렵게 명맥만 유지해온 민족영화운동은 1948년 단정수립을 맞아 완전히 소멸해 버린다.

이후 7-80년대에 들어서 자생적인 개인주의적 투쟁경향이 본고 유원목교수의 ‘오발탄’, 이강호감독의 ‘바보선생’ 등에 나타났을 뿐 영화계의 흐름으로서는 자리잡지 못했다. 80년대 말에 이르러서야 두 갈래의 영화운동종류가 형성된다.

무엇 영화배제는 예술의 범주에 속한다. 민중의 이해와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 예술은, 오직 순수성만을 강조하는 예술은 결국 지배계급의 지배도구로 이용되어, 오히려 순수성을 애국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허물며 다른 어떤 매체보다 선전동력이 커다란 영화배제는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미국이 그들의 영화를 앞세운 문화·정치적 침투를 자행하는 지금에 있어 우리영화계의 나갈길은 자명해진다.

(유기호기자)

주인된 천만노동자의 당당함을 염원

이러한 시점에서 노동자들을 모든 변혁운동의 선봉으로 이끄는 원동력은 우선 착취계급과 비착취계급의 계급적 갈등을 인식해 노동자들의 착취계급에 대한 분노를 유발해내고 위대한 민중시대에 대한 뜨거운 희망일 것이다.

“박노해 현상”은 이러한 급박한 정세와 객관적 현실이 문예영역에도 반영되어 문학작품 현실주의가 노동해방사상의 문예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때, 지난 84년 구체적이고도 생생한 노동현실을 사회과학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최초로 시로써 형상화한 ‘노동의 새벽’을 발표하면서 이 땅의 노동문학과 노동운동, 나아가 변혁운동의 질적·양적인 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박노해를 조명할 것이다.

박노해는 ‘화학 습격’으로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실존적 삶을 살아가는 노동자 시인에서 ‘계급투쟁을 통한 노동해방’을 주장하는 선진적 노동운동가로 변모하여 현재 ‘반계·반독점·반파쇼투쟁의 주체로서의 노동자계급’을 주장하는 ‘사회주의적 혁명가’로서 그

신은 박노해란 이름을 가진 개인이지만, 분명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동적 지배 권력의 심장부를 날카롭게 공격하면서 변혁운동세력의 힘을 결집시키는 세력으로서 존재한다.

이러한 박노해의 문화와 삶은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 ‘박노해현상’은 제1장에서는 박노해의 시적변모와 정

치적 지향점에 대해 일전에 나왔던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고 제2장에서는 70년대부터 89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발표된 그의 특징적인 시들을 선별하여 크게 다섯가지로 분류 제시하였으며, 제3·4·5장에서는 그의 시가 연극대본이나 노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노동의 새벽’출간 이후 각문학과 대학신문, 교지 등에 실린 관련 평론들을 묶어 박노해의 지난 삶과 문학의 변모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후 박노해와 그의

동자들의 절망과 슬픔, 원한과 분노의 정서를 날카롭게 꿰뚫어 선연하게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 대부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이 처연한 불꽃을 짓밟는 저 고상한 이론과 법조문은 무엇인가
저 섬뜩한 TV특집화면은 무엇인가
저 삼엄한 총칼은 무엇인가

이외에도, ‘꽃남캘리포니아’를 졸업한 그는 이번 독주회에서 하야든의 소나타, 쇼팽의 환상곡을 연주한다.

전해수 독주회
전해수 피아노 독주회가 오는 13일 오후 7시30분 호암아트홀에서 열린다.

“전해수 독주회”
전해수 피아노 독주회가 오는 13일 오후 7시30분 호암아트홀에서 열린다.

“전해수 독주회”
전해수 피아노 독주회가 오는 13일 오후 7시30분 호암아트홀에서 열린다.

다. 더욱이 국내영화의 제작 편수가 현저히 줄었다는 이유로 한국영화의무상영일수를 법정 1백46일에서 20일을 단축해 국내영화계의 자생성마저도 잘라버리고 있다.

이때마다 많은영화인들은 “한국영화의 장래와 민족문화의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영화

1990년대가 열렸다. 비야호로 21세기를 예비하는 세기말이 시작된 것이다. 이 세기말은 보다 소망스러운 2천년대의 새로운 세계를 인류에게 전망할 수 있게 해줄 것인가? 현재의 세계사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소련과 동구의 사회주의국가들이 겪어가고 있는 거대한 혁명적 변동과 혹독한 자기혁신의 진풍악이 결국 인간의 인간에 대한 억압과 착취의 소멸 즉 ‘인민의 인간화’로 귀결된다면, 세기말이라는 기차는 일단 아들의 말을 빠져나와 빛날 가득한 봄빛 속으로 달음질 해나가지 않을까 기대해도 좋을지라.

그런데 우리들의 상황은 어떠한가? 정년 우리들이 맞이한 90년대는 봄의 소식처럼 희망을 자아내고 있는가? 북한은 페레스 트로이카가 추동한 사회주의적 대변혁의 소용돌이 속에 빛쟁을 견어내며 과감히 합류할 어떠한 경우도 내보이지 않아서 우리를 답답하게 한다. 또한 80년대 내내 국민대중들의 가열찬 투쟁과 처절한 희생의 토대 위에서 비롯되어 90년대의 우리 남한사회를 관통해오던 월 민주화와 인간해방을 지향한 큰 물결기가 역류에 휩쓸릴 위기에 봉착한게 아닌가 해서 막막해진다. 사실, 국민적 지지와 민주세력의 공갈대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5공청산’ ‘국가보안법을 위한 악법의 즉각적 폐기’ ‘내실있는 토지공개념 및 금융실명제의 실시’ 등등의 일정한 정치적 요청들은 완전히 목살된 채로, 고루한 반공 및 반단의 논리, 자본의 논리, 지배자의 논리에 철저히 입각하여 형식적·일방적으로 80년대를 마감했다고 선언했을 때 우리의

“한국가곡의 밤”
한국예술가극연구회 ‘신촌 한국가곡의 밤’을 오는 11일 오후 7시30분 호암아트홀에서 마련한다.

“전해수 독주회”
전해수 피아노 독주회가 오는 13일 오후 7시30분 호암아트홀에서 열린다.

“전해수 독주회”
전해수 피아노 독주회가 오는 13일 오후 7시30분 호암아트홀에서 열린다.

“전해수 독주회”
전해수 피아노 독주회가 오는 13일 오후 7시30분 호암아트홀에서 열린다.

“전해수 독주회”
전해수 피아노 독주회가 오는 13일 오후 7시30분 호암아트홀에서 열린다.

“전해수 독주회”
전해수 피아노 독주회가 오는 13일 오후 7시30분 호암아트홀에서 열린다.

“전해수 독주회”
전해수 피아노 독주회가 오는 13일 오후 7시30분 호암아트홀에서 열린다.

“전해수 독주회”
전해수 피아노 독주회가 오는 13일 오후 7시30분 호암아트홀에서 열린다.

“전해수 독주회”
전해수 피아노 독주회가 오는 13일 오후 7시30분 호암아트홀에서 열린다.

“전해수 독주회”
전해수 피아노 독주회가 오는 13일 오후 7시30분 호암아트홀에서 열린다.

“전해수 독주회”
전해수 피아노 독주회가 오는 13일 오후 7시30분 호암아트홀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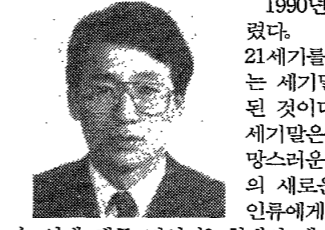
“전해수 독주회”
전해수 피아노 독주회가 오는 13일 오후 7시30분 호암아트홀에서 열린다.

“전해수 독주회”
전해수 피아노 독주회가 오는 13일 오후 7시30분 호암아트홀에서 열린다.

“전해수 독주회”
전해수 피아노 독주회가 오는 13일 오후 7시30분 호암아트홀에서 열린다.

달하나 봄이 봄이기 위해서

고昌宅
(인문대교수·사회철학)



봄은 이미 봄이기 위한 몸짓을 멈추었던 것이 아니었는가.
계곡 우리의 90년대의 첫머리는 마치 민중들의 굳건한 노력으로 쟁취되어진 민주개혁의 성과들을 자신들의 전리품처럼 독점해 버리는 것처럼 ‘남의’ 사회주의의 위기를 ‘자신의’ 자본주의의 승리로 구가하면서 형성된 이른바 ‘보수대연합’으로 뒤따라왔다. 언뜻 보면 ‘보수대연합’으로 뒤따라온 민족민주운동세력에 대한 탄압과 무력화공작으로 겨울을 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하여 싱그러움 봄내음을 맡지 못하며 희망으로 다가와야 할 세기말의 첫 봄은 그 문턱에 ‘전·월세 폭동’이라는 엄청난 절망의 자물쇠를 끼어두고 버리고 있는 형상이다. ‘전·월세 폭동’이란 가진자들에게겐 허리띠에 한 열쇠꾸러미가 더욱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지 ‘남의’ 사회주의의 위기를 겨우 이겨낸 계산을 지켜야 할 돈도 없는 그야말로 열쇠 하나 못짓는 열쇠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소박한 생각뿐인 대다수의 국민대중들이 되풀이 하여 희생되어도 마땅하고 나온다.

계절로서의 봄은 완연하게 왔지만 우리의 봄은 아직도 봄이 아니다. 그러면 봄은 영영 오지 않을 것인가. 아니다. 봄은 살아 다시 오지. 또한 겨울을 밀어내어 봄을 이끄는 것은 저들이 아니라 정작 우리들뿐인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봄이 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스스로 찾아 나서는 일이다.

노동자간의 연대의식도 현실적 힘이 되기에는 관념적이다”라는 신념의 부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박노해가 문학에 획기적인 선을 그렸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드물다.

“70년대식의 ‘속류민주주의’에 사로잡혀 공허한 구호의 감상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던 미학사학자들 비해 박노해는 ‘충격’이라 할만하다”는 현존하는 지적에 우리모두는 동의할 수 밖에 없다.

“노동자들의 정서와 한을 표출해내고 선전성과 선동성을 담아내는 문학은 노동문학으로 정의한다면 박노해의 모든 시적 변화와 정치적 성향, 칼날같은 시각은 노동자들의 대오를 이끌어가는 가장 강고한 무기가 된다.”

이러한 박노해의 문화와 삶은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 ‘박노해현상’은 제1장에서는 박노해의 시적변모와 정

“박노해의 모든 시적변화와 정치적 성향, 칼날같은 시각은 노동자들의 대오를 이끌어가는 가장 강고한 무기가 된다.”

이러한 박노해의 문화와 삶은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 ‘박노해현상’은 제1장에서는 박노해의 시적변모와 정

치적 지향점에 대해 일전에 나왔던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고 제2장에서는 70년대부터 89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발표된 그의 특징적인 시들을 선별하여 크게 다섯가지로 분류 제시하였으며, 제3·4·5장에서는 그의 시가 연극대본이나 노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노동의 새벽’출간 이후 각문학과 대학신문, 교지 등에 실린 관련 평론들을 묶어 박노해의 지난 삶과 문학의 변모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후 박노해와 그의

동자들의 절망과 슬픔, 원한과 분노의 정서를 날카롭게 꿰뚫어 선연하게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 대부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이 처연한 불꽃을 짓밟는 저 고상한 이론과 법조문은 무엇인가
저 섬뜩한 TV특집화면은 무엇인가
저 삼엄한 총칼은 무엇인가

이외에도, ‘꽃남캘리포니아’를 졸업한 그는 이번 독주회에서 하야든의 소나타, 쇼팽의 환상곡을 연주한다.

전해수 독주회
전해수 피아노 독주회가 오는 13일 오후 7시30분 호암아트홀에서 열린다.

“전해수 독주회”
전해수 피아노 독주회가 오는 13일 오후 7시30분 호암아트홀에서 열린다.

“전해수 독주회”
전해수 피아노 독주회가 오는 13일 오후 7시30분 호암아트홀에서 열린다.

“전해수 독주회”
전해수 피아노 독주회가 오는 13일 오후 7시30분 호암아트홀에서 열린다.

“전해수 독주회”
전해수 피아노 독주회가 오는 13일 오후 7시30분 호암아트홀에서 열린다.

동국대 컴퓨터학원

새롭고 희망찬 미래는 바로 현재의 우리들을 위한 시대입니다.
컴퓨터 교육 - 영남컴퓨터학원과 함께 출발하십시오.
영남컴퓨터학원은 동국대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에서 최상의 교육을 위해 항상 연구하고 있습니다.

개강일자: 3월 12일 (개강전에 수강신청 바람)
개강신청: MS-DOS, GW-BASIC, COBOL, FORTRAN, DBASE III+, 워드프로세서, LOTUS 1-2-3, 정보처리기사 1급, 정보처리기사 2급, EDPS 개론, 공무원 시험반
강의시간: 새벽 6시 반~8시, 오전 10시 반~12시, 오후 1시~2시 반, 2시~3시 반, 저녁 6시~7시 반, 7시 반~9시
※3월, 9월을 제외한 달은 매월 1일이 개강일입니다.

동국대 4거리 남편 200M

교육방송국(D.U.B.S) 수습국원 모집

지원자격: 90학번 신입생
모집부서: 제작부·보도부·아니메이션부·기술부
원서배부 및 접수: 3월5일부터 13일까지
시험일시: 3월13일 오후5시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방송국 (교내전화 2197)로

교육방송국(D.K.B.S) 수습국원 모집

경주캠퍼스 교육방송국(D.K.B.S) 수습국원 모집은 지원자격·모집부서는 서울과 동일하며 원서는 오는 14일까지 접수하며 시험은 오는 15일, 18일 2차례에 걸쳐 치르게 됩니다.

The Dongguk Post 수습기자 모집

지원자격: 90학번 신입생
시험일시: 서울-3월26일 오후5시 30분
경주-3월 22일 오후5시 30분
시험장소: 서울-명진관 A103
경주-원효관 A301
시험과목: 영어(작문, 독해, 문법) 국어(작문)
원서교부처: 서울-본사 사무실(학생회관 지하)
경주-경주Campus 동대신문사 취재부

서울구치소로부터의 사색

을 발휘하듯 올바른 사회를 지향하며 생활의 모든 측면을 일관되게 정돈함이 더욱더 큰 빛을 발할 대학인의 자세라 말하던 선배님의 모습속에서 그리고 대화문화를 더 이상 방관하는 자들의 집단이 아닌 적극적인 참여의 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선배님들의 뜨거운 용기와 절단력있는 태도속에서 저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부끄러움으로 다가왔던 저의 모습은 더욱더 자신을 재검열해 왔으며 아픈상처로 자리 지었습니다.

모순으로 가득찬 사회와 잘못된 교육들은 저를 더욱 분노케 했고 화염병을 들며 짱들을 던져대는 지배정권의 말대로 '일부과격 학생'이 되게 하였습니다.

삼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안녕하...
통일열원 46년 3월 서울구치소에서 법학과 89학번이창규입니다

“오려려 요즘 생활이 될 부담스럽고 편합니다. 마치 휴가 나온 기분이라네요.”
구말 22일 생판장을 며칠 앞두고 평화시절이란 하던 동학의 학생회관은 이른바 '남산전야제'라는

안료되고 공판을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우려했던 초래한 모습이 아닌 의외로 우렁차고 자신에 찬 씩씩한 모습을 대할 수 있었다.

“요즘 생활이 어떠냐는 기자의 첫질문에 ‘휴가보내다’는 농담을 하며 말을 이어 나갔다.
지난번과 달리 요즘 구치소는 안으로 신문도 들어오고 많이 민주화되었다. “같은 방에 일반사람도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신문읽고 공부 이슈에 대해

고쳐나가야 한다는 문제제기에 많은 호응을 얻어 무척 기쁘다”라며 미소지었다.

이러한 지지와 호응으로 지난 23일부터 3일간 일반 구류자와 합동으로 '친미파쇼야합 규탄 단식농성'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일반사람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는데는 참신, 요가를 하는 것이 큰 힘이 되었다고 알려준다.

“핵을 포기 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루도 핵을 안 읽으면 머리가 굳는 것 같거든요”라며 불만을 털어 놓으며 “매일 동료, 선배님께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 제와 중의 투쟁하던 모습에 반해 스무척이 돼 버린 것 같은 내 자신에게 다시 뜨거운 투쟁의욕을 불어 주기 때문이죠”라며 입을 열었다.

투쟁하고 있는 학우들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며 “지금 막으로 90년대는 전세계적으로 평화부드러 고 조되고 있습니다. 임수경 대표가 평양출판에서 말했듯이 5년만에 남북통일이되는 바로 자주통일의 날 기일 것입니다”라고 전제한 뒤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운동권내의 분열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운동의 대중화, 즉 학우대중이라는 불속의 불고기가 되어 일반 학우들을 투쟁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라며 원칙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7분’이라는 짧은 면회시간에 더 많은대화가 이루어 지길 바랬으나 어쩔수가 없었다.

우리 학우들은 구치소에서도 의 기소될까 하는 걱정 날로 신심의 투쟁의욕을 북돋아 가고 있으니 우리는 모두 결연한 자세로 날카로운 자기비판과 애정 어린 상호비판으로 90년 사업에 임해야 할 때이다. 우리에겐 폭압적 상황에서도 의연히 투쟁하는 학우들이 있다. 최소한 이들의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나아가기 위한 사회를 하나하나 바로 잡기 위해 일어설 때이다.

“나가면 담배 한 모금 헛차게 빨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통을 마시고 싶기에...”

밝은 마음
최경민 (10)

고등학생... 깨달은 7월.
행복은 성격이 아니잖아요.
대학생... 머리에 떠오른 7월.
중장은 어머님이 아니잖아요.

“모순으로 가득찬 사회와 잘못된 교육들은 저를 더욱 분노케 했고 화염병을 들며 짱들을 던져대는 지배정권의 말대로 일부과격 학생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 없었고, 저 역시 그러한 내용도 포함되어 선배님들의 그러한 태도를 수긍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선배님들의 대화속에서 저에게 알게 모르게 다가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모순된 억압적 사회구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이적인 생존에 허덕이며, 그들의 권리를 수탈당하고 있음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었고, 이 억압과 착취로 부터 해방을 위해 선봉에서 힘찬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지금의 모순된 사회에 이미 자각한 선배님들을 투쟁에 세계 하는 것이었지만 저에게는 과묵하고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빛이 더욱 그 효용

일반사범과 함께 학생운동 토론하기도 친미파쇼야합 규탄 단식농성 벌여 동료·선배에 편지쓰며 투쟁 다짐

중부서 압호명하에 숙대반이 되어 버렸다.
“경악”이라 표현한 그날 사건이후 약 두달이 지나고도 연행된 31명 중 총학생회장 김성규(사학)군, 동아리연합회장 김태진(국공), 이세용(무영)군 등 6명이 되는 학우들 캠퍼스에서 아직도 볼 수가 없다. 집행·폭력행위처벌법·업무방해 등의 위반으로 구속되어 수감 중인

서로 토론하고 대화를 통해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고, 더 중요한 학생운동의 순수성과 도덕성을 인식시키는데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던 “이러한 서로간의 인식공유가 비록 개인의 처지와 상황은 다를 지라도 모순된 하나의 사회를 살아간다면 같이 고민하고

“여섯명의 학우가 모두 자기 멀리 떨어진 방에 수감되어 있어 서로의 건강이 제일 걱정입니다. 가끔 만나는데 법학과 장규가 몸이 안 좋다는데...”하며 말문을 흐렸지만 자신만은 아주건강하다며 웃어 보였다.

이군은 동약에서 지금 이 순간

이 없었고, 저 역시 그러한 내용도 포함되어 선배님들의 그러한 태도를 수긍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선배님들의 대화속에서 저에게 알게 모르게 다가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모순된 억압적 사회구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이적인 생존에 허덕이며, 그들의 권리를 수탈당하고 있음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었고, 이 억압과 착취로 부터 해방을 위해 선봉에서 힘찬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지금의 모순된 사회에 이미 자각한 선배님들을 투쟁에 세계 하는 것이었지만 저에게는 과묵하고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현장취재

이들 6명의 학우들이 친미파쇼야합을 규탄하며 단식농성을 하는 등 구치소 안에서도 투쟁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고 하여 지난해 총학생회 사회부장 직무대행을 했고 투쟁본부장이었던 이세용군을 만나기 위해 귀환 서울구치소행 버스에 올랐다.

구치소 건물은 회색색으로 단정했지만 면회하러오는 많은 사람의 손잡음에서 개인마다 수심 갖듯 얼었다.

약 1시간을 기다리고 면회실에서 만난 이군은 지난해 피바다공연과 평양출판, 학우들에 관한 조사가

신문, 진정 올바른 선전선동매체인가

흔히 매체라하면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작업을 증폭시키고 전달하는 물질적, 정신적 총체를 일컫는다.

매체는 구두선동·토론·강연·기자회견등의 대인매체, 신문·유인물·책자등의 인쇄매체, 대자보·포스터등의 전시매체, 영화·비디오등의 시청각매체등으로 나눌수 있다.

이러한 매체기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하면 바로 대중을 올바르게 선전선동 해 내는 것이라고 할 수있다.

이중에서도 언론, 주로 신문언론의 역할과 의무에 관한 비평은 더욱 중요하다.

민중적 속성을 지니며 아울러 지배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을 강점할 시기에 발간되기 시작한 동아·조선일보를 생각할때, 한국의 신문대기업의 형성과 자본축적과정의 비정상성과 파멸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75년 이 두일간지는 언론의 자유실현을 위해 뛰쳐나온 기자 2백여명을 강제해고 시켰으며

창간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건연일등 아직도 5공연의 잔재와 모순구조는 그대로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 신문매체의 소유와 운영은 철저한 가족단위 주벌체제를 이루고 있음을 볼수있다.

우리나라 4대일간지(동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의 주식소유는 4대신문의 총주주의 56%를 방우영등 6인과 2개기업(세유산업·인촌기업)이 소유(계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바로 신문의 사적소유의 모순의 실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또

가심만을 자극하는 상품광고가 주류를 이룬다. 신문매체에서 광고의 문제 또한 기사내용이나 신문기업의 경제문제에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80년대는 언론계로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라 할수있다.

5공정산과 더불어 언론계 내부에 쌓여있는 비민주적요소, 구조적 모순을 하루바삐 청산해야 한다. 6공 화국이 걸리면 이후 한국일보사를 시발로 결정되기 시작한 언론사 노조는 89년 11월 52개로 불어났으며 언론노조연맹도 결성, 활발한

3월단상

로만 보인다. “졸업식장에서의 계간세계” ‘약식’으로 치러진 입학식. 이것이 동국의 친원인적 치림 확대해석되어 연일 보도되고 있다. ‘동국의 자긍심 부활’이라는 말이 이제는 자괴감까지 들게 한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치부물 드러내야 할때도 있으나 이런 필요이상으로 너무 많이 까발렸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대안

없는 민주총장선거가 빛이날 당연한 귀결일수 밖에 없다. 목표조차 없는 항해는 어디서 끝날 것인가? ‘계간’이 단상으로 남아있음에 이미 교수의 권위도 인격도 사멸되어 버린것이다. 권위와 인격이 없었던 것은 과연 무엇을 근거로 존경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명예가 한 것을 했다고 하면 비난의 화살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쏠려야 할 것이지만, 많은 동국인의 바람은 결국 학교의 민주적 발전이든 그 한에가 바로 ‘언론정화’를 내세우는 것인 것이다. 무정부주의적 발전의 의한 폭력이 아니라 민주적 대안은 마련해야 한다. ‘국난적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정반대의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어제가 완전한 붕을 알리는 경향이 있다. (愚)

한국의사회의 지배적 언론양식은 자본주의 언론이며 한국역사는 군사정권의 역사라고 할만하다. 군사정권은 민주주의를 배척하고, 따라서 한국언론의 역사적 진로를 본래 군사정권은 정보통제를 위해 언론산업에서 독재가 형성되도록 갖가지 법과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며 언론인사들은 정권과 유착하여 독점적이익을 획득하여 왔다.

80년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우민중항쟁이 일어났음에 이를 무력으로 제거하기위해 언론학살을 자행, 그 한에가 바로 ‘언론정화’를 내세우는 것인 것이다. 무정부주의적 발전의 의한 폭력이 아니라 민주적 대안은 마련해야 한다. ‘국난적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정반대의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어제가 완전한 붕을 알리는 경향이 있다. (愚)

6·29선언 이후 이러한 경향은 다소 수그러든 것처럼 보여 ‘제도언론’이 ‘민주언론’으로 탈바꿈하기에 이르렀으며 한겨레신문을 필두로 국민일보·세계일보등 중앙종합지가

한 이러한 신문매체의 경영권을 틀어쥐고 있는 자본가들은 개인소득순위에서도 역시 상위권을 기록한다.

신문기업의 수입에서 가장 커다란 원천은 바로 광고수익이다. 대자본과 정권의 결합으로 성장한 신문매체는 수익을 올릴수 있는 영역으로 광고수익을 늘여왔고 신문의 일련의 신문화운동은 광고수익이 나뉘어, 과격적으로 매도했다.

6·29선언 이후 이러한 경향은 다소 수그러든 것처럼 보여 ‘제도언론’이 ‘민주언론’으로 탈바꿈하기에 이르렀으며 한겨레신문을 필두로 국민일보·세계일보등 중앙종합지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언론노조가 결성된 이래 언론사노조들은 한국 언론사상 최초로 편집국장 직선제·편집국장 추천제 편집국장 임명동의제등의 제도적 편견된 독립정기 마련의 개기를 올렸으며 끊임없는 공정보도감시활동을 통해 외국·편파보도를 억제하는 등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런 끊임없는 언론사노조의 투쟁을 보며 진정한 민주·민중언론매체의 앞날을 기대해 본다.

(최유은記者)

베스트셀러

이우용 외 역을 판해부수·장르·주제등을 고려하여 베스트셀러 작가와 그들의 작품집을 가진 5인의 젊은 평론가들이 집필한 이 책은 제 3장에서 “젊은 날의 초상”에서 “변경”까지의 이념을 비판하고, 제2장에서는 김우중회장의 자본주의학에 대한 전면비판, 제3장에서는 마광수의 야만문학을, 제4장에서는 유인찬을 중심으로 우리시대 예제의 현주소를, 제5장에서는 역사의 태백산맥 저편에 서있는 ‘태백산맥’을 비판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다.

(시대평론사·3천3백원)

신생哲學

윤노빈 지음
우리 시대, 우리 철학의 과제? 무엇인가? 저자 윤노빈은 압울했던 독재권력이 행한 하던 시절 나름의 시대적 과제를 부담, 중앙을 이겨 내지 못하고 ‘또 하나의 반쪽’을 선택하며 떠났지만, 그가 남긴 철학적 자기성찰의 고백적인 이 책은 인류의 굳은 혀를 생생하게 주 문에 증득된 민족의 광학한 입술에 생기를 불어주기 위해 오랜동안 기도와 주문속에 갇혀져 있던 언어와 개념들에 찬란한 불빛을 비추어 이 불빛을 해명하는 것을 철학의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학민사·3천6백원)

젊은 혁명가의 초상

최태환·박태환 지음
이 책은 前 인민군 역사 기록부장이자 정치보위부 책임자로 출세한 최태환의 구술을 소설가 박태환이 정리·집필한 한국전쟁에 관한 체험적 기록물로 고위간부의 기록이란 점에서 다른 작품들에서 얻기 힘든 자료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인민군에게 37도선 이남의 지도가 지금되지 않았다는 증언은 한국전쟁의 성격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던져주고 있는데 빨치산활동을 한국전쟁의 일과정으로 위치시킴으로써 인식지평의 확대를 가져다 준다. (공명체·3천5백원)

해물리학자 이휘소

공석하 편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핵물리학자 1977년 의문의 죽음에 당한 이휘소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갈등과 마찰을 파헤친 문제의 책으로 이휘소박사는 정경고 2학년때 대입검정고시에 합격, 서울공대 화공과에 수석으로 합격하는 등 천재성을 발휘했는데 그의 가장 큰 공로는 1972년에 발표한 게이지장의 재규격화이론으로 게이지 입자와 소립자들의 상호작용을 기술하는 이론인데 이박사는 소립자 물리학의 세계적인 학자로 일컬어지고 있다. (뿌리·2천8백원)

황해

이원규 지음
새로운 인식으로 분단 문제를 그린 장편소설로 80년대에 등장한 가장 신비한 반란작가 이원규가 인천과 그 앞 바다를 무대로 하여 비극의 민족분단사를 그리고 있다. “황해”는 지난날의 분단소설들이 배웠던 상투성이 합성을 거둔하게 벗어나 역사의 객관적 시점을 확보한 작품으로 해방공간의 혼돈기에 일어났던 사건과 수많은 삶을 속에서 인간존재의 본질을 해명하고 아울러 새로운 인간형의 창조에 충실을 기해 우리의 아픈 역사를 돌아보게 한다. (한국예술사·4천원)

하얀전쟁

이정호 지음
전쟁사설이라는 새 장르를 개척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 소설은 미국의 문화가 세계에 미친 영향을 한국사람이지만 미국의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은 한 출판사 부장에게 대한 내용으로 월남적인 지식은 역사적 의미의 추적을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이 소설은 안정효씨가 월남으로 가서 보고 느꼈던 전쟁에 대한 개인적인 서술로서 전쟁이라는 집단적인 사건이 지나는 의미보다는 전쟁행위에 휘말린 인간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고려문·3천8백원)

박노해현상

편집부 역을 84년말 당시의 한국사회의 성격과 노동자계급의 의식구조속에서 구체적 노동현상을 사회과학적으로 인식하여 ‘노동자 계급적 당파성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최초의 시집’ ‘노동의 새벽’을 발표하였던 박노해의 삶과 정치적 지향은 무엇이고 이를 반영하는 그의 노동해방 방식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그리고 그의 문학에 대한 문학적 대중의 평가는 어떠한가 등의 질문에 답하는 이 책은 노동문학의 성과와 노동운동의 발전추진을 검증하고 있다. (동예·3천8백원)

갈라진 45년 가사본 반쪽

안동일 지음
본인의 복한취체를 위한 책으로 안동일 기사는 6·25이후 세대로 발전 이데올로기에 물들지 않아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북한을 소개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질 것으로 기대되는 지금 안동일 기사의 북한취체는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 책은 젊은기자가 쓴 북한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취재기사는 점에서 객관적인 북한인식을 가능케 하고 있다. (들베개·4천원)

원시불교와 부파불교

이지수 옮김
불교라는 거대한 식물이 있어서 꽃송불교가 꽃이라면 원시불교나 부파불교는 씨앗이자 뿌리라고 같다. 그러므로 원시불교와 소승불교의 관계는 직선적, 이원적인 논리에 바탕한 사상의 프로테스탄트와 카톨릭교회와의 관계처럼 배타적·대립적이 아닌 유기적·통합적 관계이다. 이 책은 문헌이나 교리뿐 아니라 석존제세의 역사적·사상적 배경과, 석존과 그제제들의 삶의 모습, 교단의 형성과 변천등을 문화사적 방법으로 간략하면서도 포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대원정사·3천원)

원으로부터의 탈출

김동환 지음
우리가 살고 있는 원이라는 우주에는 불변의 진리가 있을 수 없다. 원으로부터의 탈출은 이 세상상의 변하는 진리로부터의 탈출함을 뜻하는데 우리에게 종교·철학·과학·문학 그리고 유제라는 원으로부터 탈출해야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책으로 우리는 왜 원으로부터 탈출해야 하는가? 원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원은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왜 우리는 원을 저주해야만 하는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영동·3천8백원)

원으로부터의 탈출

김동환 지음
우리가 살고 있는 원이라는 우주에는 불변의 진리가 있을 수 없다. 원으로부터의 탈출은 이 세상상의 변하는 진리로부터의 탈출함을 뜻하는데 우리에게 종교·철학·과학·문학 그리고 유제라는 원으로부터 탈출해야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책으로 우리는 왜 원으로부터 탈출해야 하는가? 원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원은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왜 우리는 원을 저주해야만 하는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영동·3천8백원)

하얀전쟁

이정호 지음
전쟁사설이라는 새 장르를 개척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 소설은 미국의 문화가 세계에 미친 영향을 한국사람이지만 미국의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은 한 출판사 부장에게 대한 내용으로 월남적인 지식은 역사적 의미의 추적을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이 소설은 안정효씨가 월남으로 가서 보고 느꼈던 전쟁에 대한 개인적인 서술로서 전쟁이라는 집단적인 사건이 지나는 의미보다는 전쟁행위에 휘말린 인간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고려문·3천8백원)

새로나온 책들